

청소년기 제한형 및 평생 지속형 범죄 청소년의 판별변인 분석

양 계 민[†]

김 의 철

중앙대학교

본 연구는 범죄 청소년들을 전혀 다른 내면적 원인기제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는 Moffitt(1993)의 이론에 근거하여 한국 비행 청소년들의 유형을 평생 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으로 판별하는 변인들을 획단적인 방법을 통하여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절차를 사용하였다. 첫째, Moffitt의 이론과 청소년 재비행과 관련된 한국 및 외국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범죄집단과 일반집단을 구분하는 변인을 파악하였다. 둘째, 청소년집단(일반 청소년 283명, 소년원 174명)과 성인집단(일반성인 134명, 교도소 성인 139명)을 대상으로 판별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집단을 범죄집단과 일반집단으로 판별하는 변인들을 추출하였다. 셋째, 청소년 집단을 범죄집단과 일반집단으로 판별하는 변인들 중 다시 성인 집단을 범죄집단과 일반집단으로 판별하는 변인들의 하부셋트를 파악하였다. 이 마지막 하부셋트의 변인들을 판별분석 한 결과,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구분하는 변인은 크게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첫째는 주로 자신의 생활에 관련된 요인이었고, 두 번째 요인은 친구관련 요인, 세 번째 요인은 가정과 관련된 요인이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변인 중에서 Moffitt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와 한국에서 독특하게 나타난 변인을 제시하고 그 차이를 설명하였다.

주요어 : 범죄청소년, Moffitt, 평생지속형, 청소년기 제한형, 절제자, 성인기 시작형

[†] 교신저자 : 양 계 민,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E-mail : yangkm68@hanmail.net

연령에 따른 범죄 발생률은 어느 국가나 시대를 막론하고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박광배, 2002), 연령별 범죄 발생률이 10대 초반에 급증하기 시작하여 17세를 전후로 한 10대 후반에 가장 최고에 달하고 그 이후에 다시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림 1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나며 대부분의 범죄에서 나타나고 (McClintock & Avision, 1968), 19세기 영국(Nelson, 1857), 아르헨티나(DeFleur, 1970) 등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보고하고 있어 범죄율에 대한 연령의 효과가 지역, 시대, 성별집단, 범죄종류 등에 걸쳐서 동일한 양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범죄발생효과를 '연령효과의 불가변성(invariance of age effect)'라고 한다.

연령에 따라 나타나는 범죄발생률의 추세는 한 가지 의문을 유발한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10대 후반에 범죄 발생률이 최고를 기록하다가 성인기 초기가 되면 급격히 감소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 Moffitt(1993)는 청소년 범죄자들이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즉, 겉으로는 유사한 듯

보이나 사실은 서로 다른 기제에 의해서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 관련연구의 결과를 보면 어떤 연구는 비행 행동이 17세에 절정을 이루게 되다가 초기 성인기가 되면 급격히 떨어진다고 보고하기도 하고(Wilson & Hermnstein, 1985; Farrington, 1986; Blumstein & Cohen, 1987; Junger_tas et al., 1992), 어떤 연구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비행 행동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난다고도 하는데 (Loeber, 1982; Loeber & Dishion, 1983; Loeber et al., 1989), 이런 상반된 연구결과가 나오는 이유는 비행을 저지르는 청소년들이 각기 다른 두 개의 하위 집단으로 나뉘어지기 때문이다. 하나는 평생지속형(Life Course Persistent Type)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기 제한형(Adolescents Limited Type)으로 평생 지속형은 매우 어린 나이에 범죄를 시작하여 연령이 증가해감에 따라 그 연령에 맞는 각종 범죄들을 다양하게 저지르며 결국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범죄자로 남아있는 집단을 말하며 청소년기 제한형은 발달특성상 청소년 시기에 범죄를 저지르다가 성인기가 되면 그만두게 되는 집단을 말한다. 그런데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발달과정에서 한 두 번씩은 비행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전체 청소년기의 범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고,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기 제한형들이 범죄행동을 그만두기 때문에 다시 범죄율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즉, 10대들의 범죄율이 높아지는 이유가 바로 이 청소년기 제한형 아이들에 의한 결과라는 것이다.

Moffitt은 자신의 이론을 검증하고자 뉴질랜드에서 종단연구를 실시하였다. 종단연구를 실시한 이유는 어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것이 평생 지속될지 청소년기에만 일시적으로 나타나고 성인기가 되면 사라질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성장과정을 지속적으로 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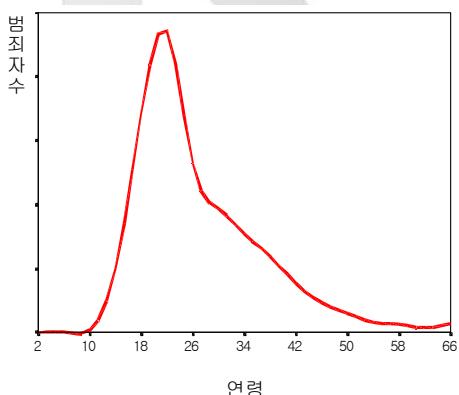


그림 1. 연령에 따른 인구 100명당 범죄자수
(U.S. Department of Justice, 1999)

조사하는 방법이 유일하고도 가장 명확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연구 결과 청소년기 제한형은 남자 122명(26%), 여자 78명(18%), 평생 지속형은 여자 6명(여자의 1%), 남자 47명(남자의 10%)이었다. 여기서 평생 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 남자들을 비교했을 때 두 집단간에 차이를 보여준 변인들을 보면, 우선 가정과 관련된 변인에서, 어머니가 자식을 처음 출산한 연령(평생지속형이 낮다), 어머니 자식의 관찰(평생지속형이 높다), 일관적이지 못한 훈육(평생지속형이 더 심하다), 가족간 갈등(평생 지속형이 더 높다), 어머니의 정신건강(평생지속 형이 더 좋지 않다), 돌봐준 사람의 수(평생지속 형이 더 많다), 편부, 또는 편모슬하에서 자란 햇 수(평생지속형이 더 많다),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평생지속형이 더 낮다) 등이었다. 두 번째로 신경 인지적 위험요인으로는 BInet IQ 검사결과(평생지속형이 더 낮다), WISC-R의 언어성 IQ(평 생지속형이 낮다), 읽기능력(평생지속형이 낮다), 신경심리기억(neuropsychmemory)(평생지속형이 낮 다) 등에서 차이가 있었다. 세 번째로 아동의 기 질 및 행동과 관련된 위험요인으로는 다루기 어 려움(평생지속형이 높음), 통제하기 어려움(평생 지속형이 높음), 과잉활동:부모평가 및 교사평가(평생지속형이 높음) 과잉활동: 교사평가(평생지 속형이 높음), 싸움: 부모평가 및 교사평가(평생 지속형이 높음), 또래의 거부: 부모평가 및 교사 평가(평생지속형이 높음) 등의 변인에서 차이가 있었다. 네 번째로 친구와 관련된 요인은 두 집 단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 소년기 제한형과 평생지속형 모두 비행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범죄를 연령과 관련된 패턴을 가지고 구분하여 하위집단으로 나누고 그 원인 및 관련 변인들을 살펴본 연구들은 Moffitt의 연구 이외에

도 많이 있는데(Loeber, 1982; Patterson et al., 1991; Moffitt, 1993, 1994), 여러 나라에서 수행된 종단 연구의 결과를 보면, 확실히 평생 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덴마크(Høgh & Wolf, 1983), 영국(Farrington, 1983), 핀란드(Pulkkinen, 1988), 스웨덴(Janson, 1982; Stattin & Magnusson, 1991), 미국(Blumstein et al., 1985; Patterson & Yoerger, 1993) 등지에서 실시한 연구에서 안정적인 초기 시작 형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범죄 청소년의 두 가지 대표적인 유형과 대표적인 유형에 속하지는 않지만 적은 비율로 발견되는 기타 집단에 대하여 기존 연구결과 밝혀진 특징을 간략히 기술해보면 다음과 같다.

평생지속형 (Life Course Persistent Type)

평생지속형의 특성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범죄 행동의 이른 시작과 안정성, 그리고 범죄의 다양성이다. 이들은 청소년기 제한형에 비해 이른 나 이에 범죄를 시작하는데 그 신호는 매우 어린 나 이부터 나타나고 연령이 증가하면서 각 연령에 맞는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다(Stattin & Magnusson, 1989). 예를 들면 3세 때부터 벌써 부모들이 다 루기 어렵다고 보고하고, 4세가 되면 다른 사람 을 물고 끌리는 행동을 하며, 10세가 되어서는 물건을 훔치거나 무단결석을 하고, 16세가 되면 마약을 팔거나 자동차 절도를 하고, 22세가 되면 강간, 30세가 되면 사기를 치거나 아동 및 배우 자를 학대하는 등 다양한 범죄행동을 지속적으 로 한다. 평생지속형 아이들은 거의 모든 사회에 서 일어나는 범죄의 대부분을 저지르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들의 범죄 경향성을 보면 주로 혼 자서 범죄를 저지르고 폭력이나 사기 등 대인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olfgang et al., 1972; Farrington, 1983; Denno, 1994).

Moffitt(1993)는 평생지속형이 발생되는 원인을 유전적인 요인이나 신경학적 결함으로 보았다. 유전적 요인이나 신경학적 결함으로 인하여 기질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아이들의 경우, 아이가 성장하게 됨에 따라 언어, 운동, 사회적 발달 및 인지적 발달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 결핍되고, 이러한 인지적 결핍은 자기통제의 어려움, 욕구 자연 능력의 부족, 본인의 행동에 대한 결과 예상 능력 부족, 정서 명명의 부정확성, 갈등의 물리적 해결 등의 경향성 등과 관련된다(Lynam et al., 1993; Moffitt, 1993, 1994; Caspi & Moffitt, 1995).

따라서 아이들이 부모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도 제한되고 친사회적인 기술을 발달시키는 데도 문제가 있으며 학교에서도 적절하게 공부를 할 수 없게 된다. Moffitt의 다른 연구(1990a)에 따르면 평생지속형 아이들의 경우 학습장애나 과잉활동장애가 겹쳐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언급한 인지적 결핍의 기제를 지지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만일 그런 기질을 가진 아이가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집안에 태어나면 문제는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청소년기 제한형(Adolescents Limited Type)

평생지속형에 비해 청소년기 제한형은 갑자기 비행행동을 시작해서 갑자기 끝내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상황적 일관성이 부족해서 가게에서 물건을 훔치거나 친구와 약물을 하는 등 비행을 하지만 학교 규칙은 잘 지키는 등의 상반된 행동방식을 보여준다. 이들이 청소년기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일로, Moffitt의 뉴질랜드 Dunedin의 연구에서 보면

(Moffitt et al., 1996), 남자아이들 중 약 24%가 청소년기에 한번 이상 비행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청소년기 제한형의 경우 폭력과 관련된 범죄를 덜 저지른다는 점에서 평생지속형과 다른 특성을 보여준다(Moffitt, 1994).

청소년기 제한형 청소년들도 반사회적인 일탈 행동이 도구적인 기능을 할 때 밖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주로 평생지속형 아이들을 모방하여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한다. 그들이 모방을 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것은 대부분 성인으로부터 자율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저지르는 범죄, 공공질서 위반, 약물남용, 가출 또는 절도 등이다.

보통 청소년들은 성인의 목표나 자원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 훨씬 전에 신체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반사회적인 행동을 통하여 성인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획득하고 성인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나 사회적으로는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비행이나 범죄로 발현된다. 성인이 되면 계속 범죄행동을 하는 것이 매우 심각한 결과를 놓고, 예전에는 도달할 수 없었던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지위에 이미 도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범죄를 할 필요가 없게 된다. 청소년기 제한형 아이들은 평생 지속형 아이들과 달리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계속 형성하고, 긍정적인 사회적 기술을 개발하며,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성적 도 팬창고 성인의 생활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Kratzer & Hodgins, 1997) 범죄행동으로부터의 회복이 매우 쉬운 편이다.

성인기 시작형(Adult starter)

Moffitt이 초점을 둔 집단은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이지만 그 두 집단에 속하지 않는 세 번째 집단이 있다. 범법자의 세 번째 집단은

성인기에 범죄를 시작하는 집단인데 이 집단 역시 여러 연구에서 발견된 바 있다(DiLalla & Gottesman, 1989; Farrington, 1989). 이 집단에 대하여 Moffitt(1994)는 '매우 특이한 집단'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Moffitt(1993)에 따르면 범죄자 중 성인기에 처음 체포된 비율이 5-15%이기는 하지만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기 이전에 이미 불법적인 행동을 저지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성인기에 범죄행동을 처음으로 시작했다고 보지 않는다. 이들의 특징은 주로 폭력과 관련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아동기의 문제가 그들의 성인기 범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Kratzer와 Hodgins(1999)의 연구 결과에서는 Moffitt의 이론과는 달리 성인기 범죄자 중 많은 사람들이 18세 이후에 범죄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집단의 속성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절제자 (Abstainer)

절제자 집단은 아동기와 청소년기 동안에 모든 반사회적 행동을 하지 않는 집단을 지칭하는 말로 남자 청소년 집단에서 절제자가 되는 것은 매우 드물다고 보는데, 이 집단이 비행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다른 친구들로부터 사회적 관계에서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Moffitt, 1996). 이 사실을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뉴질랜드 Dunedin의 종단연구에서 절제자들의 18세 때 성격을 검사해본 결과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공포심을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으며, 대인관계에서 소심하고, 사회적으로 부적절하며, 성관계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Moffitt(2000)가 그 집단이 26세 성인이 되었을 때의 성격을 추적해본 결과 이들은 매우 건전하고 심리적 문제 가 가장 적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

면, 외향성은 낮지만, 신경증이 매우 낮고, 양심성은 매우 높으며, 기타 정신병을 경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인이 되어서 여성이나 아동을 대상으로 한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았다. 경제적인 생활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전혀 없고 직업적 측면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가장 좋은 인상평가를 받고 있었고, 범죄와 관련된 행동 역시 한 번 정도 경험하거나 전혀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렇듯 절제자 집단의 청소년들이 청소년기에는 통제적이고 공포심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오히려 성인이 되어 심리적 문제가 적고 건전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경제적 수준에 도달한 이유는 이들이 청소년기에 친사회적이고 긍정적인 자원들을 많이 확보해 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범죄청소년 유형의 변별

청소년의 범죄행동을 원인에 따라 달리 다른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왜냐하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의 입장은 처벌 또는 응보의 개념이 아닌 선도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다. 청소년들은 환경에 따라 얼마든지 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전환정책(conversion)이나 교정정책을 통하여 법을 준수하는 건전한 사회의 시민으로 선도 및 육성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른 후 받게되는 사후 처리의 과정을 보면 법의 원래 목적과 의도를 충족시키고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된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은 감별소를 통하여 분류되고 처우지침에 따라 달리 취급되기는 하지만 그것은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감

호 또는 지도 할 것인지에 대한 판정일 뿐 어떤 내용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려는 없다. 청소년 범죄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적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단순히 범죄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여 보호한다는 사실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곁으로 보아 유사한 형태의 비행 및 범죄도 원인론적인 측면에서 다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다. 만일 원인이 다른 청소년 범죄행동을 곁으로 나타난 표현형이 같다고 해서 차별화 되지 않은 동일한 방식으로 다루게 된다면 이는 선도 및 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극단적인 경우 오히려 서로간에 범죄행동을 학습하거나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놓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선도효과를 위해서는 개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처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면에서 청소년의 범죄 및 비행 행동이 다른 원인으로부터 기인한다는 Moffitt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매우 유용하다. 첫째로 범죄의 시작연령, 지속기간, 심화와 갑작스러운 정지에 대해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두 번째는 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며, 세 번째로 범죄행동의 결과가 가지는 의미에 초점을 두고 평생동안 범죄가 어떤 방식으로 발달하는지에 대한 경로에 대해 설명해줄 수 있다는 점이고, 마지막으로 위의 세 가지 이점에 기초하여 처치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Moffitt의 이론을 청소년의 비행유형 구분에 그대로 이용하는 데에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나는 Moffitt의 이론이 서구사회에서 주로 연구되고 검증되었다는 점이다. 서구와 한국은 문화적 맥락이 매우 다를 뿐 아니라 특히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이 큰 차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구에서 검증된 이론을 한국의 청소년에

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적인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 타당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연구방법의 측면에서 종단연구를 사용했다는 점인데, 실제 어떤 한 아이가 청소년기 제한형일지 평생지속형일지를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으로 지켜보는 방법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며 이론검증을 위한 거의 유일한 방법일 수 있다. Moffitt(1993) 자신도 청소년기에는 두 유형이 비슷한 방식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범법빈도와 그 심각성을 토대로 한 횡단연구로는 두 집단을 변별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청소년의 행동교정을 위한 개입 측면에서 볼 때 종단적 방법은 효용성 측면에서 크게 떨어진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판단에 지나치게 오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판단을 위하여 횡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만일 종단적인 방법으로만 구분될 수 있는 두 유형의 청소년들을 횡단적인 방법으로 변별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유용한 지표가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Moffitt의 이론을 이용하여 현실적인 단점들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Moffitt의 종단연구를 통해 얻은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변별하는 변인들을 횡단적인 방법으로 변별하고 그에 따라 두 집단을 변별하는 척도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 제한형과 평생지속형을 구분하는 변인들을 탐색한다.

둘째, 성인범죄자와 일반성인을 구분하는 변인들을 탐색한다.

셋째, 청소년들 중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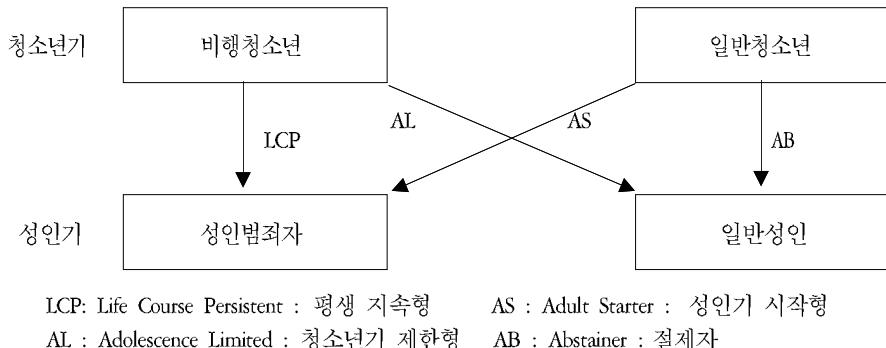


그림 2. 본 연구의 기본 가정에 대한 설명

청소년과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구분한다. 이 때 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에는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이 혼합되어 있을 것이다.

넷째, 다음으로 성인범죄자와 일반성인을 구분하는 변인을 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들을 구분한다. 이 때 성인범죄자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는 집단이 평생지속형이 되고 그렇지 않은 집단은 청소년기 제한형이 될 것이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2와 같다.

Moffitt의 이론에 따르면 평생지속형은 결국 성인범죄자가 될 것이고 청소년기 제한형은 일시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만 결국은 정상적인 경로로 되돌아가서 일반 성인이 될 것이므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구분한 후 비행 청소년 중에서 성인범죄자가 청소년기에 보였던 특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을 구분한다면 그것이 바로 평생지속형이 될 것이라는 논리가 성립된다. 이러한 논리에 따라 각 절차에서 집단들을 구분하는 변인들을 알아내고, 산출된 변인을 기준으로 집단을 변별함으로써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남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그 이유는 여자들의 경우 남자와는 매우 다른 비행 양상을 보이고, 발생비율도 훨씬 적기 때문에 남

자비행과 같은 차원에서 연구되어서는 여자 청소년 범죄의 속성을 절절히 반영하지 못할 것이라는 가정에 기초하며, 따라서 여자 범죄 청소년들의 변별문제는 추후 연구로 남겨두었다.

본 연구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연구에 사용될 설문문항을 제작하는 절차이고, 두 번째 부분은 청소년 집단을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으로 구분하는 절차이며, 마지막 부분은 구분된 집단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는 부분이었다.

연구 1

연구 1은 척도에 사용될 문항들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였다

방법

척도에 사용할 문항을 구성하기 위하여 Moffitt이 종단 연구를 통하여 평생 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구분해 준다고 검증한 변인들을 선별하고, 기존의 외국문헌과 한국문헌에서 청소년들

및 성인의 재비행을 예측한다고 밝혀진 변인들을 선별하였다. 비교된 연구들은 Moffitt이 뉴질랜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연구(2000), 이시균 외(1982)의 비행소년 감별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김준호 이동원의 비행소년 감별기준(1994), 이병기 노성호의 소년범 재범예측을 위한 연구(1994), 민수홍의 비행성조기예측요인(1996),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비행성 예측표, Smith와 Aloisi의 재범에 관한 연구논문(1999), 미연방 가석방 지침, 김지은의 청소년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1998), 그리고 DSM-IV에서 사용하는 변인 등이었다. 이 때 MMPI검사 결과라든가 기타 신경학적인 검사나 지능검사 등 간단하게 측정할 수 없는 문항들에 대해서는 자기 보고식으로 문항을 전환하거나 또는 그 변인을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문항으로 대치하였다.

결 과

최종 선정된 문항은 총 12가지 영역으로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비행행동 경험 및 최초연령 소주방이나 호프집에 가 본 경험, 친구, 학교 수업시간 빼먹기, 기출, 불량씨클 가입, 음주, 흡연 등의 일반지위 비행과, 본드나 가스 등의 약물비행, 여자친구나 아는 여자와 성관계를 해본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사창가에 가서 여자와 성관계를 맺은 적이 있는지의 여부, 강제로 성관계 맺음 등과 같은 성비행, 남의 물건 훔치기 등의 재산비행, 기물파손이나 폐싸움, 타인 폭행, 가족 폭행 등의 폭력비행과, 강력범죄에 속하는 행동인 강도, 방화, 살인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목록에 포함된 문항들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경험을 했는지와 한

가지 비행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그리고 최초에 그 행위를 한 연령에 대하여 물어봄으로써 범죄의 다양성, 심각성, 이론 시작, 폭력범죄 관련성 등에 대하여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범죄개인사적 요인: 최초의 체포연령, 경찰에 잡힌 경험, 소년원에 입소한 연령, 소년원에 들어온 횟수, 범죄명, 30일 이상 구류를 선고받은 횟수, 소년원에 들어올 당시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지의 여부, 소년원에 들어올 당시 직업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몇 살 때 처음 경찰에 체포되었는지의 여부와 범죄명, 소년원 들어올 당시 직업이 있었는지와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지의 여부, 그리고 소년원에 들어오기 전에 어디에서 기거를 했는지(자신의 집인지 아니면 집 이외의 장소인지)의 여부도 선정되었다.

3) 학교요인: 최종학력과 학교를 1주일 이상 무단결석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 학교에서의 성적, 과거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등이 포함되었다.

4) 친구요인: 친한 친구 가운데 경찰에 잡혀간 친구가 있는지의 여부, 친한 친구 비행행동, 친구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 친구 중 무위도식하는 친구나 결손가정의 친구가 있는지의 여부, 비행을 했을 때 공범이 있었는지의 여부 역시 질문에 포함시켰다.

5) 자신의 성숙에 대한 인식: 자신의 정숙에 대한 인식을 위해서는 Montepare와 Latchman(1989)의 질문지를 윤유경(1995)이 개정한 주관적 연령 척도를 사용하였고, 실제 성숙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성관계를 한 연령과 자위연령을 포함시켰다.

6) 이성관계: 현재 여자친구가 있는지 여부, 현재의 여자친구를 제외하고 과거에 다른 여자친구가 있었는지 여부, 지금까지 사귀어본 여자친구의 수(현재 여자친구 포함) 등 이성관련 변인들을 포함시켰다.

7) 충동성과 자기통제력: '나는 학교숙제를 꼬박꼬박 하는 편이다,' '나는 말보다 주먹이 앞선다,' '나는 지금 당장 즐거운 일으면 나중에 손해가 되더라도 한다,' '나에게는 스릴과 모험이 안전보다 더 흥미 있다' 의 문항을 사용하였고 그 이외에 '나는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참을 수가 없다', '나는 작은 일에도 쉽게 홍분한다,' '나는 화가 나면 참기가 어렵다', '사람들이 나에게 성질이 불같다는 말을 자주 한다', '내 기분이나 감정은 갑자기 변하곤 한다', '나는 성미가 급하다' 등의 문항을 민수홍의 비행의 조기예측요인 연구(1996)에서 선별하였다.

8) 공격성: '나는 가끔 물건을 박살내고 싶다', '누군가 나를 괴롭히면 꼭 부수한다', '나는 싸우고 죽이는 영화가 재미있다', '나는 화가 나면 사람을 때리고 싶다' 등의 문항을 선별하였는데 역시 민수홍의 비행의 조기예측요인 연구(1995)에서 예측요인으로 밝혀진 것으로 원래는 Caspi와 그의 동료들(1994)의 연구에서 산출된 변인이었다. 그 외에 주먹싸움이나 말싸움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를 각각 물어보았다.

9) 자아존중감: Rosenberg(1968)의 자아 존중감 척도 중에서 정적 방향의 문항 두 개('나는 내가 적어도 남들만큼은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나는 내가 좋은 특성을 많이 지녔다고 느낀다')와 부적인 방향의 문항 두 개('전반적으로 나는 스스로를 실패한 존재로 느낀다', '나는 때때

로 내가 아무 쓸모 없다고 느낀다')를 선택하였다. 본 논문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척도는 많은 문항을 모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간략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10) 도덕적 가치: Bandura(1995)의 도덕적 이탈 질문지를 박영신과 김의철(2001)이 번안한 것으로, 원래 도덕적 이탈 질문지는 도덕적 정당화, 완곡한 언어표현, 상대적 비교, 책임감 분산, 책임전이, 행동의 영향에 대한 왜곡, 비인간화, 비난의 귀인 등 총 8가지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제작하고자 하는 설문지 특성상 상대적 비교와 비난의 귀인 그리고 책임의 전이 세 하위변인을 측정하는 문항 4개씩을 연구에 포함시켰다.

11) 부모관련 요인: 부모가 기소된 적이 있는지, 어머니가 처음 출산한 연령, 일관되지 못한 훈육, 엄격한 훈육, 어머니의 정신건강, 돌봐주는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 편부 또는 편모술하에서 산 기간, 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포함시켰다. 그 외 부모가 경찰에게 잡힌 적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부모가 어떤 범법행위로 기소되었는지, 형제가 경찰에 잡힌 적이 있는지, 있다면 누구인지, 형제가 어떤 범법행위로 기소되었는지, 어머니가 몇 살 때 첫 아이를 출산하였는지, 어렸을 때 키워준 사람이 몇 명인지, 현재 부모 모두 생존해 있는지 여부, 부모 중 돌아가신 분이 있다면 몇 살 때 돌아가셨는지, 소년원에 들어오기 이전에 부모와 동거했는지의 여부 등의 질문을 구성하였다. 또한 생활수준을 상, 중, 하와 가족의 한달 총수입으로 나누어서 각각 물어보았고, 아버지의 직업, 어머니의 직업, 어머니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는지 여부, 어머니가 약물 중독의 경험이 있는지 여부,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술이나 담배를 했는지의 여부, 어머니가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시는지, 어머니는 약물을 한 적이 있는지,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는지 여부, 아버지의 음주 정도, 아버지의 약물 정도, 아버지로부터 구타를 당한 정도, 어머니로부터 구타를 당한 정도, 집에 있을 때 편안하다고 느끼는 정도, 부모가 서로 싸우는 정도, 청소년이 부모와 싸우는 정도 등에 대한 질문을 포함시켰다. 또한 부모의 훈육방식과 부모의 지지 정도를 물어보았다.

12) 신경학적, 인지적 요인: 신경학적인 요인에 대한 평가는 현재 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 오경자, 홍강의, 이혜련, 1999)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본 척도의 모든 문항을 포함시키기에는 문항수가 지나치게 많은 관계로 그 중 사회적 미성숙을 측정하는 문항 7개, 사고의 문제를 측정하는 문항 7개, 주의집중을 측정하는 문항 8개를 사용하였다.

연구 2

연구 2는 청소년 집단을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으로 구분하는 변인들을 알아내기 위한 연구였다.

방법

피험자

피험자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지방의 중소도시인 C시의 남자중학교에 재학중인 2, 3학년 학생 142명, 같은 C시의 인문계 남자고등학교 1,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 141명으로 총 283명이었고,

표 1. 집단별 피험자 수

집단	소집단별 피험자 수	연령집단별 피험자 수	전체
중학생	142		
청소년	고등학생	141	457
	소년원	174	730
성인	일반성인	134	273
	교도소	139	

연령분포는 13세에서 17세까지였다. 소년원 학생들은 같은 C시에 있는 소년원 학생들로 14세에서 20세까지 총 174명으로 청소년집단의 피험자 수는 총 457명이었다. 일반성인은 25세부터 49세 까지의 남자 134명, 교도소에 수감된 성인은 A시의 교도소와 S시의 구치소에 수감된 21세부터 61세까지의 남자 139명으로 성인의 총 피험자 수는 273명이었고 전체 피험자 수는 730명이었다 (표 1).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는 연구 1을 통하여 최종 선정된 문항의 설문지로 모두 네 종류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각각 일반청소년용, 소년원용, 일반성인용, 교도소 성인용 설문지였다. 일반청소년과 일반성인집단용 설문지는 소년원 및 교도소경험과 관련된 부분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소년원 및 교도소 집단과 동일하였다.

분석 절차

1단계: 청소년 집단과 성인집단을 대상으로 변량 및 회귀분석을 통하여 청소년 집단에서는 소

년원 집단과 일반 청소년 집단의 차이가 없는 문항을 제거하고, 성인 집단에서는 교도소집단과 일반성인집단에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문항을 제거하였다.

2단계: 청소년 집단에서 의미 있는 집단차이를 보인 변인들, 즉, 청소년 집단에서 일반청소년과 소년원 청소년 집단에서 차이가 없는 변인들을 선정하고, 성인집단에서 의미 있는 집단차이를 보인 변인들, 즉, 성인 집단에서 일반성인과 교도소 성인간에 차이를 나타낸 변인들을 선정하였다.

3단계: 청소년집단에서만 집단변별력이 유의미한 문항과 청소년집단과 성인집단 모두를 변별하는 문항을 대상으로 판별분석 하였다

결과

청소년 집단의 판별분석

집단 변별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성인집단에서 는 변별력이 없고 청소년 집단에서만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을 0과 1로 이분화한 후 연령을 포함하여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문항별 Fisher 판별함수가 산출되었고 이 중 계수가 .1 이하인 문항을 제거한 결과 소주방이나 호프 집에 가 본 경험, 친구의 학교수업시간 빼먹기, 친구의 불량씨클 가입, 친구의 흡연, 친구의 사창가 성관계, 친구의 남의 물건 훔치기, 친구의 폐싸움, 친구의 방화, 결손친구가 있는지 여부, 어머니의 학력, 아버지의 흡연, 부모와의 싸움, 신경증 중 사회적 미성숙 요인, 어머니의 훈육 중 무관심, 아버지의 직업이 단순노동이나 차

산업인지의 여부 연령, 총 16가지 변인이 산출되었다. 분석 결과 산출된 판별함수의 유의도는 Wilks' Lambda 값이 .306이고 Chi-square가 522.90 ($df=16$)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별함수에 의해서 집단을 나누고 실제 일반 학생과 소년원 학생들을 분류해본 결과 일반 학생 279명 중 261명이 일반학생 집단으로 올바르게 판별되고 소년원은 173명 중 161명이 소년원 집단으로 할당되어 정확히 나누어질 확률은 표 3에서 보이듯이 93.4%로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2. 청소년집단의 판별변인 및 판별계수

문항	Fisher 계수
소주방이나 호프집에 가본 경험	.560
친구: 학교수업시간 빼먹기	.426
친구: 불량씨클 가입	.089
친구: 흡연	.210
친구: 사창가에 가서 성관계	.789
친구: 남의 물건 훔치기	.303
친구: 폐싸움	.071
친구: 방화	.406
결손친구	.619
어머니의 학력	.933
아버지의 흡연	.685
부모님과 싸움	-.625
신경증 : 사회적 미성숙	.366
어머니의 훈육: 무관심	1.140
아버지의 직업: 단순노동 및 차산업 vs 기타	.410
연령	.200
Constant	-5.295

표 3. 판별분석에 의한 청소년집단 분류

집 단	예언집단			
	일반학생	소년원	전체	
원집단	일반학생	261 (93.5)	18 (6.5)	279 (100)
	소년원	12 (6.9)	161 (93.1)	173 (100)
판별정확률: 93.4%				

성인집단의 판별분석

다음으로는 청소년집단과 성인집단에서 모두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으로 성인 집단을 판별분석 하였다. 성인 집단을 대상으로 분석한 이유는 Moffitt의 기본 이론이 평생 지속형들이 어려서부터 범죄행동을 하다가 결국에는 성인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가정이기 때문에, 일반 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을 구분 한 후 비행 청소년으로 구분된 집단을 일반성인과 범죄집단을 구분하는 변인으로 다시 나눈다면 결국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으로 나눌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에 따라서였다.

청소년 집단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모든 변인의 값을 1과 0으로 코딩한 후 판별분석을 하고, Fisher 계수가 0.1 이하인 문항들은 두 차례에 걸쳐서 제거하였다. 그 결과 총 19개의 문항이 산출되었다. 최종 판별분석 결과 Wilks' Lamda 값이 .473, Chi-square 값이 195.68($df=19$)로 .00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문항의 판별계수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판별분석의 결과에 따라 성인집단을 교도소 집단과 일반성인 집단으로 분류된 결과 아래의 표 5와 같이 교도소 집단은 139명 중 117명을 정확히 분류하였고, 일반성인은 134명 중 117명을 정확히 판별하여 정확율이 85.7%였다.

표 4. 성인집단의 판별변인 및 판별계수

문 항	Fisher 계수
가출	.349
불량씨를 가입	.735
사창가에 가서 성관계	.363
18세 이전에 학교를 1주일 이상 무단결석 한 경험	.510
18세 이전에 친구나 기타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 한 정도	-.366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성적	-.731
과거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받아본 경험	.140
친구: 소주방이나 호프집에 가본 경험	-1.294
친구: 여자친구나 아는 여자와 성관계	.314
부모님은 당신들의 친구들을 좋아 하셨는지 여부	-1.024
청소년기에 사귀어본 여자친구의 수	.280
청소년기에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진 경험	.642
부모님 중 경찰에게 잡힌 경험이 있는 분이 있는지 여부	.098
형제 중 경찰에게 잡힌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	.484
어머니의 최초 출산연령	.298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술을 마신 정도	.211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담배를 피우셨는지 여부	.257
청소년기에 부모님과 싸운 정도	-.824
어머니 생존여부	.529
(Constant)	1.137

표 5. 판별분석에 의한 성인집단 분류

집단	예언집단			
	교도소	일반성인	전체	
원집단	교도소	117 (84.2)	22 (15.8)	139 (100)
	일반성인	17 (12.7)	117 (87.3)	134 (100)
판별 정확률 : 85.7%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의 분류

앞의 절차는 청소년 집단을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구분하기 위한 사전절차로 단순히 청소년 집단 및 성인집단의 비행이나 범죄 집단과 일반집단을 비교한 것이고 이번에는 원래 연구의 목적인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구분하였다. Moffitt의 이론에서 평생 지속형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다가 결국에 가서는 성인 범죄자가 된다고 가정하고 있다. 그 가정에 따라 두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청소년 집단 중에서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을 구분하게 되면 비행 청소년으로 구분된 아이들 중에는 평생 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이 함께 공존하게 된다. 그러면 비행 집단을 다시 성인기 범죄자와 일반성인을 구분하는 변인으로 나누게 되면, 그 것은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구분하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3과 같다.

집단분류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청소년 집단 중에서 일반 청소년집단과 소년원집단을 구분하는 변인을 구분해내었다.
2. 성인 집단 중에서 일반성인 집단과 교도소 집단을 구분하는 변인을 구분해내었다.

3. 청소년 집단에서만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을 가지고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4. 청소년 집단과 성인 집단모두에서 변별력이 있는 문항을 가지고 판별분석을 실시하였다.

5. 각 개인마다 최종 판별분석에서 살아남은 문항의 값에 Fisher계수를 곱하고 절편값을 더해서 개인의 점수를 산출하였다. 이 때, 개인 점수는 두 가지가 산출되는데 하나는 청소년 집단에서만 변별력이 있는 문항들에 의한 점수이고 다른 하나는 청소년 집단과 성인집단에서 모두 변별력이 있는 문항에 의한 점수이다.

6. 각 개인의 산출된 점수를 판별점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다. 이 때, 청소년 집단의 경우 일반학생의 집단 평균은 -1.182로 부적인 값을 갖고 소년원 집단은 1.907로 정적인 값을 갖기 때문에 개인의 점수가 절단점보다 낮으면 일반청소년 집단, 절단점보다 높으면 소년원 집단이 된다. 마찬가지로 성인집단의 경우도 판별점수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성인은 -1.071로 부적인 값을, 교도소 집단은 1.032로 정적인 값을 갖기 때문에 점수가 절단점 보다 작으면 일반성인, 절단점 보다 크면 교도소 집단이 된다.

7. 마지막으로 개인마다 청소년 변별최도점수와 성인변별최도점수를 산출한다. 두 차원의 높고 낮음에 따라 네 가지 집단이 아래 그림 4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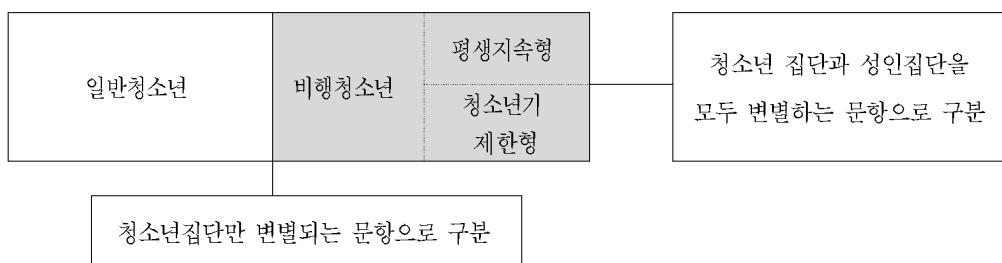


그림 3. 집단분류 절차

같이 산출되는데 절단점을 기준으로 청소년 변별문항에서 점수가 높고, 성인 변별문항 점수도 높은 집단은 평생 지속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청소년변별문항 점수는 높지만 성인집단 변별 점수는 낮다면 그것은 청소년기 제한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청소년기 점수와 성인집단 변별 문항 점수가 모두 낮다면 그것은 일반청소년 (Moffitt은 그것을 Abstainer라 칭하였다)으로 구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기 변별문항점수는 낮은데 성인변별문항 점수는 높다면 그것을 성인기 시작형(Adult starter)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단연구로 변별이 가능한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자기 보고식 설문지를 통하여 획단적으로 변별하는 것이 목적 이었다. 판별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선별한 문항들이 청소년 집단과 성인집단 모두에서 변별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정확률 각각 93.4%와 85.7%). 이는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문항들의 타당함을 나타내주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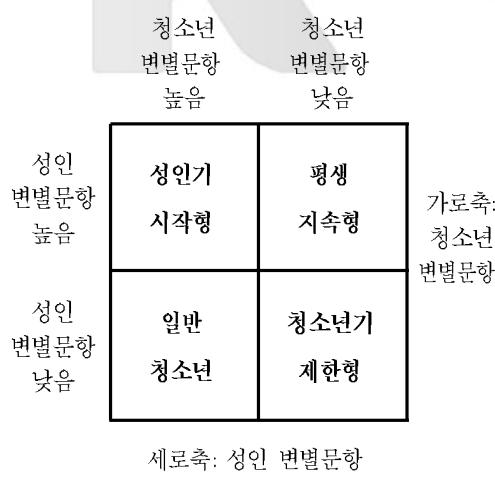


그림 4. 집단분류체계

연구 3

본 연구는 연구 2에서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준거가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도 역시 변별력을 지니는지, 그리고 본 연구에서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변별하고자 한 논리에 따라 실제 네 집단이 산출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연구였다.

방법

피험자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청소년집단의 경우 1차로 연구 2에서 사용한 자료를 판별분석의 Boot 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여 검증하였고, 2차로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의 자료를 가지고 cross validation 검사를 실시하였다. 성인의 경우도 본 연구의 자료를 판별분석의 Boot strapping 방법으로 검증하였고, cross validation 검사는 본 연구 이외의 추가 자료인 100명의 자료로 검증하였다. 따라서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사용된 피험자의 수는 청소년 622명(연구 2의 피험자 452명과 추가자료 170명), 성인 373명(연구 2의 피험자 273명과 추가자료 100명), 합하여 총 1095명이었다.

절차

일단은 본 연구에서 산출된 척도준거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소년 집단과 성인 집단에서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변인들을 가지고 판별분석 실시하였다. 두 번째로 연구결과 산출된 집단이 과연 이론과 일치하는지를 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산출된 네 집단이 원래 어떤 집단에 속하는지, 즉 범죄집단인지 일반집단 인지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결 과

준거 타당도

청소년 집단에서 산출된 집단분류기준을 가지 고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본 연구에서 산출된 변인들로 일반학생과 소년원을 정확히 판별하는 정확율이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93.4%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Boot strapping 방법에 의한 타당도도 91.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청소년 집단 자료가 아닌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본 연구에서 산출된 변인으로 판별분석을 실시한 결과 정확율 76.5%로 원 자료에서의 타당도 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비교적 높은 정도로 판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번째로 청소년집단도 변별하고 성인집단도 변별하는 변인들을 가지고 성인집단을 변별한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표 8에 제시되었 듯이 Fisher 판별함수에 의한 정확률도 85.7%였 고, Boot-strapping에 의한 정확율도 81.3%로 우수한 편이었다.

또한 본 연구의 분석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두었던 일반성인 51명과 교도소 집단 49명의 자료를 가지고 cross-validation을 산출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정확률 69%로 원집단에 비 하여 낮은 정확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이는 타당도 분석에 사용된 피험자의 수가 집단 당 약 50명으로 다소 적은 경향성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표 6. 청소년집단의 Boot-strapping법에 의한 집단 분류

판별방법	원집단	예언집단		
		일반학생	소년원	전체
Fisher	일반학생	261 (93.5)	18 (6.5)	279 (100)
판별함수	소년원	12 (6.9)	161 (93.1)	173 (100)
Boot- strapping	일반학생	259 (92.8)	20 (7.2)	279 (100)
	소년원	18 (10.4)	155 (89.6)	173 (100)

판별정확률: 93.4%
Boot-strapping 방법에 의한 정확률 91.6%

표 7. 청소년 집단의 Cross-validation 방법에 의한 집단분류

원집단	예언집단		
	일반학생	소년원	전체
일반학생	84 (72.4)	32 (27.6)	116 (100)
소년원	8 (14.8)	46 (85.2)	54 (100)

정확률: 76.5%

표 8. 성인집단의 Boot-strapping법에 의한 집단 분류

판별방법	원집단	예언집단		전체
		교도소	일반성인	
Fisher	교도소	117 (84.2)	22 (15.8)	139 (100)
판별함수	일반성인	17 (12.7)	117 (87.3)	134 (100)
Boot- strapping	교도소	109 (78.4)	30 (21.6)	139 (100)
	일반성인	21 (15.7)	113 (84.3)	134 (100)

판별정확률: 85.7%
Boot-strapping 방법에 의한 정확률 81.3%

표 9. 성인 집단의 Cross-validation 방법에 의한 집단 분류

원집단	예언집단		전체
	교도소	일반성인	
교도소	37 (75.5)	12 (24.5)	49 (100)
일반성인	19 (37.3)	32 (62.7)	51 (100)

정확률: 69%

최종 산출된 변인 및 판별계수

본 연구를 통하여 최종 완성된 변인 및 판별계수는 표 12와 같다. 표 12에 제시된 최종 판별계수는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 제한형과 평생지속형으로 구분된 청소년들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산출된 것이다. 왜냐하면 최종 산출된 변인은 일반 청소년이 아닌 범죄 청소년 중 청소년기 제한형과 평생지속형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한 청소년이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다음의 각 척도 문항에 응답을 하고, 각 문항에 대한 응답의 코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청소년 자신의 비행에 대한 문항인 Part I의 1번부터 8번까지는 ‘예’는 1, ‘아니오’는 0으로 계산한다. 단, 5번 성적은 상, 중, 하 중에서 ‘상과 중’을 1, ‘하’를 0으로 코딩한다. 7번 문항인 여자친구의 수는 ‘1명 이하’는 0, ‘2명 이상’은 1로 코딩한다. Part II인 친구관련 준거 중에서 소주방이나 호프집에 출입한 친구가 있는지의 여부와 여자친구나 아는 여자와 성관계한 친구가 있는지의 여부는 ‘있다’를 1로 ‘없다’를 0으로 코딩한다. 부모님이 자신의 친구들을 좋아하는지의 여부도 ‘그렇다’를 1, ‘아니다’를 0으로 코딩한다. Part III인 가정관련 준거 중에서는 형제 중 경찰에게 잡힌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는 ‘예’를 1, ‘아니오’를 0으로, 어머니의 최초 출산 연령은 23세 이하’를 1, ‘24세 이상’을 0으로 코딩한다. 청소년기에 어머니가 술은 마신 정도는 ‘거의 마시지 않는다’를 0, ‘가끔 마신다’, ‘자주 마신다’, ‘거의 매일 마셨다’를 1로 코딩하고, 청소년기에 부모님과 싸운 정도에 대한 문항은 ‘결코 그렇지 않다’가 0 ‘때때로 그렇다’와 ‘거의 항상 그렇다’가 1로 코딩한다. 마지막으로 어머니가 살아 계신지의 여부는 살아 계시면 0, 돌아가셨으면 1로 코

딩한다. 다음 단계로 평가자가 각 응답에 해당하는 점수와 각 문항에 해당하는 판별계수를 곱하여 모두 합한다. 그리고 나서 상수인 -.514를 더해주면 해당 청소년의 점수가 산출된다. 마지막

표 12. 최종변인 및 판별계수

I. 다음은 여러분 자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판별계수	
1. 가출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685
2. 불량 썬클에 가입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462
3. 학교를 1주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경험이 있습니까?	.558
4.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을 얼마나 하는 편입니까?	-.105
5. 학교 성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771
6.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554
7. 지금까지 사귀어본 여자친구는 몇 명이나 됩니까?	.263
8.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1.117
II. 다음은 여러분의 친구들에 대한 질문입니다.	
1. 친구 중에 소주방이나 호프집에 가본 친구가 있습니까?	-.1952
2. 친구 중에 여자친구나 아는 여자와 성관계를 해본 친구가 있습니까?	.550
3. 부모님은 당신의 친구들을 좋아하십니까?	-.1.438
III. 다음은 여러분의 부모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1. 형제가 경찰에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460
2. 어머니께서는 몇 살 때 첫아이를 낳으셨습니까?	.801
3. 어머니는 술을 얼마나 자주 마십니까?	.412
4. 당신은 부모님과 싸움입니까?	-.1.142
5. 친어머니가 현재 살아 계십니까?	.398
Constant(상수)	
-.514	

총점 계산: -.514 + (각 문항의 응답 * 각 판별계수)의 합

표 13. 최종 산출된 변인과 선행연구와의 비교

요인	본 연구에서 산출된 척도문항	Moffitt 이론	한국연구	외국연구
가출		0	1, 4	
불량씨클 가입		0		
학교를 1주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경험			4	
청소년 행동요인	친구나 기타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는 정도	0	5	
중고등학교 성적: 상, 중, 하		0		2
과거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받아본 경험			4	2
과거 사귀어본 여자친구의 수		0		
지금까지 성관계를 가진 여자의 수		0		
친구요인	친구가 소주방이나 호프집에 가본 경험 있음		3	
	친구가 여자친구나 아는 여자와 성관계		3	
	부모님이 친구들을 좋아하셨는지 여부		1	
가정요인	형제가 경찰에 잡힌 경험이 있는지 여부			2
	어머니의 최초 출산연령	0		
	어머니가 술을 마신 정도			2
	부모와 싸우는 정도	0		
	친어머니의 생존여부	0	4, 5	

0: Moffitt, 1: 이시균, 1982. 2: Smith & Aloisis, 1999, 3: 김지운, 1997, 4: 비행성 예측표, 1967,
5: 비행의 조기예측요인, 1996에서 변별력이 있는 것으로 나왔음을 의미

으로 산출된 값을 판별 절단점¹⁾에 근거하여 집단을 나눈다.

Moffitt 이론과의 비교

본 연구를 통하여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구분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변인들이 산출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 중 Moffitt의 이론에서 산출된 변인으로 한국에서도 범죄청소년을 변별

할 수 있는지 검증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최종 선발된 변인들을 기준의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보았다(표 13).

그 결과 산출된 변인을 크게 청소년 자신의 행동요인, 친구요인, 가정요인으로 나눌 수 있었다. 우선 청소년 자신의 행동요인을 살펴보면, Moffitt이 표 13에 제시된 비행행동 하나하나를 언급한 바는 없다. 그러나 비행행동의 다양성이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구분한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에 일단은 타당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 문항들은 원래 한국형사정책 연구원(1995a)에서 개발한 청소년 비행척도에서 추출

1) $t_c = \frac{t_1(n_1) + t_2(n_2)}{n_1 + n_2}$

한 문항들로, 평생 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개발된 문항들은 아니지만 본 연구에서 두 집단을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요인에는 우선 학교를 1주일 이상 무단 결석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가 산출되었는데, 이것은 Moffitt의 이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문헌(비행성 예측표, 1962)에서 언급되었던 변인이다. 학교생활을 적절히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로 학교의 무단결석이 좋은 변별변인으로 여겨졌다. 그 외 친구나 다른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는 정도가 Moffitt의 이론 및 Smith와 Aloisis(1999)의 연구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이 변인도 구체적으로 언급되었다가 보다 교우관계를 적절히 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로부터 간접적으로 시사되는 변인이다. 이에 비해 학교의 성적은 Moffitt의 이론과 Smith와 Aloisis (1999)의 연구 모두에서 비행의 유형을 나눈다고 언급한 변인들이었다. 학교에서 정학이나 퇴학을 받았을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 역시 학교를 일찍 그만두는 경향이 있다는 Moffitt 등(1996)의 연구와 치하는 결과이다.

친구요인은 Moffitt의 경우 언급하지 않았던 변인으로 한국에서 독특하게 나온 요인이다. 원래 Moffitt은 평생 지속형이 교우관계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주변 사람들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 나중에는 친구변인이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밝힌 적도 있다(Moffitt, 2000).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친구의 비행성이 두 집단 구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지은의 '청소년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밝혀진 바와 같은 것으로 한국에서는 평생지속형의 경우 친구의 비행성이 중요한 변별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친구를 부모님이 좋아하셨는지

의 여부는 이시균 외(1982)의 연구에서 재비행을 예측한다고 산출된 변인인데 본 연구에서 평생 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구분할 수 있는 변별력이 있는 변인으로 밝혀졌다. 다음으로 이성 관계는 과거 사귀어본 여자친구의 수나 지금까지 성관계를 가진 여자의 수 등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는데 두 문항 모두 Moffitt(1993)의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가정요인은 부모가 경찰에 체포된 경험이 있는지의 여부는 Moffitt의 연구(2000)와 Smith & Aloisis(1999)의 연구에서 언급된 변인이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판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싸우는 정도, 친어머니가 생존해 있는지 여부는 Moffitt의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산출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출산연령의 경우는 매우 독특한 변인으로 Moffitt이 제안한 변인인데 본 연구에서도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구분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론 연령에 출산을 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결합이 있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아이를 일찍 낳는다는 것은 어머니의 생활수준 및 교육수준이 높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다는 사실과 관련된다고 보여진다. 어머니가 술을 마시거나 흡연하는 정도는 Smith와 Aloisis(1999)가 재범여부를 구분한다고 밝힌 변인으로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최종 산출된 변인을 Moffitt이 언급했던 포괄적인 연구(2000)와 비교해보았을 때, Moffitt은 제안했지만 본 연구에서는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온 변인들이 있었다. 예를 들면, 처음 범죄를 저지른 나이는 Moffitt의 이론에서 매우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본 연구가 자기 보고식이라는 한계 때문인 것으로 여겨지는데 Moffitt은 범죄로 인하여 경찰

에 체포된 기록을 근거로 사용한 반면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에게 직접 쓰도록 했기 때문에 객관적 평가가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충동성이나 공격성, 자아존중감, 도덕적 이탈과 같은 가치관 등의 심리적인 변인도 모두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관련된 변인 중에서는 Moffitt이 엄격하거나 일관적이지 못한 훈육이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구분한다고 제안한 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어머니의 정신건강 문제와 돌봐주는 사람이 자주 바뀌는 것, 편부 또는 편모술하에서 산 기간 역시 본 연구에서는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경학적, 인지적인 위험요인은 연구 결과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경학적, 인지적 요인이 변별력이 없는 요인이라고 생각되기 보다 Moffitt이 포괄적인 신경심리검사 및 인지적 능력검사도구를 통하여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구분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간접적인 자기보고식 검사형태로 측정을 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즉, 정확한 검사 및 진단이 필요한 신경학적, 인지적 결손여부를 단순히 스스로의 자각증상으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친구의 비행성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변인에서 Moffitt의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Moffitt의 이론에서 언급한 변인을 가지고 한국의 비행 청소년들을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으로 구분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며, 친구의 비행성 등 한국에서 독특하게 나타나는 변인들을 첨가한다면 청소년기 범죄 유형을 구분하고 그에 맞는 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 현실적으로 도움을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범죄 청소년들의 효과적인 선도 및 교육을 위하여 청소년 범죄자의 유형을 구분하여 각 특성에 알맞은 개입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구였다. 기존의 범죄청소년의 유형을 구분하는 척도들은 주로 경험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제작되고 사용됨으로써 집단 구분은 하지만 각 집단에 알맞은 처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합의는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이에 대해 Moffitt의 발달이론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를着手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를 보면, 첫째로 Moffitt의 뉴질랜드 연구에서 보았듯이 엄청난 시간과 비용과 노력이 드는 종단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 범죄의 지속성 여부를 횡단적으로 방법으로 밝혀냈다는 점이다. 개인이 평생 범죄를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기에만 일시적으로 범죄행동을 하다가 성인이 되면 건전한 시민으로 돌아갈 것인지를 변별하기 위해서는 종단연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각 집단의 특성을 이용하여 횡단적인 방법으로도 두 집단을 변별하는 척도를 개발함으로써 종단연구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청소년 범죄 유형의 변별과 선도정책에 중요한 합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기존에도 반사회적인 행동들을 분류하는 시도들이 있어왔고 임상장면이나 감별소 등 현장에서 범죄 청소년들을 감별하는 진단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들 중 행동의 목록뿐 아니라 그 원인 및 대안에 대한 시사점을 출만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연구한 기준을 없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Moffitt의 청소년 범죄의

발달적 분류이론에 근거한 자기보고형 청소년범죄유형 변별척도를 개발한 결과 여러 기관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예측들을 심리학적인 틀 위에서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나은 예측력을 지니는 척도를 개발하였고, 자료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안정적인 척도를 개발하였으며, 범죄 청소년들을 분류된 바에 따라 개인 특성에 맞는 적절한 개입프로그램에 할당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 산출된 변인에 의하여 집단을 판별하였을 때 판별 정확율이 다른 선행 연구들에 비해 우수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로 집단을 판별하였을 때 청소년 집단의 판별 정확율은 93.4%, Bootstrapping 방법에 의한 정확율은 91.6%가 나왔으며, 새로운 자료로 cross-validation 방법에 따라 집단을 분류했을 때에도 76.5%의 정확율을 보였다. 이는 성인집단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별 정확율이 85.7%, Bootstrapping 방법에 의한 정확율이 81.3%, cross-validation에 의한 방법이 69%가 나왔다. 이는 소년범의 재범 예측에 대한 연구(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1993)에서 올바로 분류된 비율이 70.5%인 것과 비교하여 볼 때 뒤쳐지지 않는 수준이며 오히려 나은 수준이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cross-validation의 결과도 76.5% 이상으로 산출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앞의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대부분의 범죄예측이 셋 중 하나만 맞는다는 통설에 비하면 76.5%라는 것은 셋 중 둘 이상이 되는 것이므로 범죄예측에 작은 수준이라도 기여를 한 것이라고 보여진다.

본 연구의 학문적 실용적 측면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연구수행 상에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제한점이 있었다. 우선 첫째로, 아무리 이론을

근거로 연구를 한다 할지라도 본 연구에 사용된 피험자 수는 다소 적은 경향이 있다. 본 연구가 교도소과문지 소년원 등 쉽게 설문을 얻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설문 수집 자체가 다소 어려웠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게다가 설문 문항이 매우 사적이고 자신의 드러내고 싶지 않은 비행 또는 범죄행동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피험자들의 무응답율이 높았다. 결측치가 많은 사례들은 제거할 수밖에 없었기에 많은 설문지들이 제거되었고 더욱더 피험자 수가 줄어들었다. 또한 피험자 집단의 특성으로 볼 때 범죄 행동에 있어서 극단적인 두 부류, 즉, 소년원 생과 일반 중고등학생만이 포함되었는데, 보다 정확하고 심도 깊은 연구를 위해서는 그 중간단계에 속하는 집단, 예를 들면, 보호관찰소에 위탁된 청소년들과 실업계 고등학교의 청소년들을 포함시켰다면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다. 그러나 피험자의 수가 본 연구의 타당성을 의심할 정도의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왜냐하면 본 연구가 척도의 규준을 산출하는 등 표본의 특성이 필요한 연구라면 표본의 크기가 문제가 되겠지만, 본 연구는 검사항목을 구성하기 위한 연구이므로 표본의 크기가 대표성의 핵심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로 본 연구에 응답한 조사 대상자들이 매우 사적인 문제에 대해 또는 자신의 비행이나 범죄행동에 대하여 얼마나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을 했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본 연구가 아닌 어떤 범죄연구라도 피하기 어려운 문제로, 연구자가 어떤 장치를 하더라도 제거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응답자의 솔직성 문제는 본 연구의 타당성을 가장 위협하는 부분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산출된 변인들을 100% 신뢰하기는 어렵고, 전반적인 경향성 정도를 나타내는 변인들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로, 본 연구에서 최종 산출된 문항으로 두 집단을 구분했다고 그것이 그들의 향후 행동을 예측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본 연구가 청소년 범죄자를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구분하였지 그것이 앞으로 그들의 행동을 예측한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들이 범죄를 계속 할지 청소년기만 하고 그만들지는 종단적인 연구를 해야만 알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러나 이미 Moffitt이 종단적인 연구를 통해서 특정 변인 상에서 평생 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증명한 바 있고 그 외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검증된 바 있기 때문에²⁾ 검증된 이론에 근거하여 집단은 얼마든지 구분할 수 있고, 집단이 구분되었으면 그것은 곧 청소년들의 범죄 지속성을 예측하는 일이 된다. 왜냐하면 척도의 속성이 평생지속형과 청소년기 제한형을 구분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단이 두 집단으로 변별이 되었다면 그것은 앞으로 평생 지속형으로 구분된 아이들이 범죄 행동을 지속할 가능성이 많고, 청소년기 제한형으로 구분된 아이들은 성인기가 되면 그만두고 건실한 사회성원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최종 척도를 가지고 집단을 구분하는데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문제들이 있다. 본 연구는 청소년기 제한형과 평생지속형을 구분하기 위한 첫 단계 연구일 뿐 완벽한 기준을 완성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예측 오류를 고려하지 않고 본 연구를 가지고 함부로 사람을 판단하게 된다면 오히려 낙인효과(Labeling effect)에 의해서 분류하지 않았다

2) 예를 들면, 덴마크(Høgh and Wolf, 1983), 영국 (Farrington, 1983), 핀란드 (Pulkkinen, 1988), 스웨덴(Janson, 1982; Stattin and Magnusson, 1991), 미국 (Blumstein et al., 1985; Patterson and Yoerger, 1993) 등.

면 범죄소년으로 낙인찍히지 않고 일반청소년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상 어떤 사람의 범죄를 예측한다고 하는 일은 대단히 어렵고도 윤리적인 문제가 개입되는 미묘한 주제이다. 그러나 과정이 어렵고 결과의 적용상에서 논쟁의 여지가 많다고 하여 그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형사사법 단계에서 적합한 판정을 내리기 위해서나 사전 식별 및 적절한 개입 프로그램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범죄를 예측하고자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도 청소년들의 범죄경력을 예측하고자 했지만 원래의 목적은 본 연구에서 산출된 척도를 가지고 청소년 범죄자들의 형량이나 처분에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에 맞는 개입을 개발하고 적용시키는데 도움이 되고자 했던 것이다. 따라서 범죄 예측은 비윤리적이고 어렵기 때문에 순대지 말아야 할 부분으로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적절한 활용에 초점을 두어 합당한 예측과 올바른 적용을 한다면 사회적으로도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범죄 및 비행청소년들의 유형이 다르다는 가정 하에 행해진 첫 번째 연구에 불과하다. 위에서 제시한 여러 가지 제한점들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산출된 척도를 지금 당장 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며, 단지 본 연구를 기초로 범죄청소년의 예측과 관련된 연구들이 지속적이고 발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 첫 번째로, 종단연구를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변인이 청소년 범죄의 유형을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개발된 척도를 가지고 범죄 청소년에게 적용하여 종단적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다. 종단

적인 연구를 통하여 변별력이 있는 변인을 확인하고 변별력이 없는 문항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향후 더욱 우수한 변별력과 예언력을 지닌 척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변별된 집단의 특성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고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집단을 구분하고 구분된 집단을 산출한 준거의 측면만을 다루었지만 그 이외의 여러 가지 측면, 예를 들면, 학교환경과, 가정환경, 교우관계 등의 환경변인과 심리적인 변인들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은 포함되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가지고 태어난 신경학적 인지적 특성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기질적 특성이 특정한 환경과 만났을 때 상호작용을 하여 비행청소년을 유발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일반청소년으로 회복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환경요인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해본다면 유사한 기질을 지닌 집단이 어떤 환경적 요인에서 다르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통찰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 본 연구를 활용하는 방법은, 앞에서도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청소년 범죄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 청소년이 평생지속형에 속하는지 청소년기 제한형에 속하는지 그 잠재성을 평가하여 그에 맞는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것이다. 현재 소년 보호시설에서 청소년 범죄자들에게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주로 컴퓨터나 영어, 입시교육 등 인성교육과는 관련이 적은 프로그램들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인성교육이 실시된다 해도 집단마다 다른 성질의 프로그램이 적용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를 이용하여 분류된 집단의 속성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면 청소년 교화 및 선도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준호, 이동원 (1994). 비행소년 감별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 김지은 (1997). 청소년의 재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내무부 (1967). 비행성 예측표(내무부 예규 제 66 호)
- 민수홍 (1996). 비행의 조기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 박광배 (2002). *법심리학*. 서울: 학지사
- 박영신, 김의철 (2001). 청소년 학교폭력행동과 환경 및 심리특성의 관계: 위탁청소년과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교육심리 연구*, Vol 15, No. 2, pp. 25-52.
- 오경자, 홍강의, 이해련 (1999).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 *여울: 중앙적성 출판사*.
- 이병기, 노성호 (1994). 소년범의 재범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정책 연구원*.
- 이시균, 정용래, 노정한 (1982). 비행소년 감별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법무연구* 9.
- Blumstein, A., & Cohen, J. (1987). Characterizing criminal careers. *Science*, 237, 985-991.
- Blumstein, A., Farrington, D. P., Moitra, S. (1985). Delinquency careers: innocents, desisters, and persisters. In Tonry, M., & Morris, N., (Eds),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Vol. 6. Chicago: Chicago University Press.
- Caspi, A., & Moffitt, T. E. (1995). The continuity of maladaptive behavior: From description to explanation in the study of antisocial behavior. In D. Cicchetti & D. Cohen (Eds.),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Vol. 2, (pp. 472-511). New York: Wiley.
- DeFleur, L. B. (1970). *Delinquency in Argentina*.

- Pullman: Washington University Press.
- Denno, D. W. (1994). Gender, crime, and the criminal law defens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85, 80-180
- DiLalla, L. F., & Gottesman, I. I. (1989). Heterogeneity of causes for delinquency and criminality: Lifespan perspectives.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1, 339-349.
- Farrington, D. P. (1983). Offending from 10 to 25 years of age. In K. Van Dusen & S. A. Mednick (Eds.), *Prospective studies of crime and delinquency* (pp. 17-38). Boston: Kluwer-Nijhoff.
- Farrington, D. P. (1986). Age and crime. In M. Tonry & N. Morris (Eds.), *Crime and Justice: An Annual Review of Research*, Vol. 7, (pp. 189-250).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arrington, D. P., & West, D. J. (1993). Criminal, penal and life histories of chronic offender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and early identification. *Criminal Behavior and Mental Health*, 3, 492-523.
- Farrington, D.P. (1989). Early predictors of adolescent aggression and adult violence. *Violence and Victims*, 4, 389-394.
- Fergusson, D. M., Horwood, L. J., & Nagin, D. S. (2000). Offending trajectories in a New Zealand birth cohort. *Criminology*, 38, 525-552.
- Høgh, E., & Wolf, P. (1983). Violent crime in a birth cohort: Copenhagen 1953-1977. In Van Dusen K. T., Mednick, S. A., (Eds.). *Prospective Studies of Crime and Delinquency*. The Hague: Kluwer-Nijhoff.
- Janson, C. G. (1982). *Delinquency among Metropolitan Boys*. Research Report No. 17. Stockholm, University of Stockholm. Department of Sociology.
- Junger-tas, J., Kruissink, M., and van der Laan, P. (1992). *Development of juvenile Delinquency and Juvenile Justice Protection: 1980-1990*. Arnhem: Couda-Quint.
- Kratzer, L. & Hodgins, S. (1999). A typology of offenders: a test of Moffitt's theory among males and female from childhood to age 30. *Criminal Behavior and Mental Health*, 9, 57-73.
- Kratzer, L., & Hodgins, S. (1997). Adult outcomes of childhood problems: A cohort stud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5, 65-82.
- Loeber, R. (1982). The stability of antisocial and delinquent child behavior: A review. *Child Development*, 53, 1431-1446.
- Loeber, R., & Dishion, T. (1983). Early predictors of male delinquency: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94, 68-99.
- Loeber, R., Tremblay, R. E., Gagnon, C., & Charlebois, P. (1989). Continuity and desistance in boys' early fighting at school.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 39-50.
- Lynam, D., Moffitt, T., Stouthamer-Loeber, M. (1993). Explaining the relation between IQ and delinquency: Class, race, test motivation, school failure, or self-control?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 187-196.
- McClintock, F. H., & Avision, H. H. (1968). *Crime in England and Wales*. London: Heinemann.
- Moffitt, T. and Caspi, A. (in press). Childhood predictors differentiate life-course persistent and adolescence-limited antisocial pathways, among males and females.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Vol. 100, (4), 674-701.
- Moffitt, T. E. (1994). Natural histories of delinquency. In E. Weitekamp & H. J. Kerner (Eds.), *Cross-national longitudinal research on human development and criminal behavior* (pp. 3-61). Dordrecht: Kluwer Academic Press.
- Moffitt, T. E., Caspi, A., Dickson, N., Silva, P. A., & Stanton, W. (1996). Childhood-onset versus adolescent-onset antisocial conduct in males: Natural history from age 3 to 18. *Developmental and Psychopathology*, 8, 399-424.
- Neison, F. G. P. (1857). *Contributions to Vital Statistics*. London: Simpkin, Marshall.
- Patterson, G. R., & Yoerger, K. (1993). Developmental models for delinquent behavior. In Hodgins, S., (Ed.). *Mental Disorder and Crime* (pp. 140-172). Newbury park, CA: Sage.
- Patterson, G. R., Capaldi, D., Bank, L. (1991). An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ng delinquency. In Pepler, D. J., & Rubin, K. L.,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Pulkkinen, L. (1988). Delinquent development: theoretical and empirical considerations. In Rutter, M., (Ed.). *Studies of Psychological Risk: The power of Longitudinal Dat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mith, W. R., & Aloisi, M. F. (1999). Prediction of recidivism among 'second timers' in the juvenile justice system: Efficiency in screening chronic offenders. *American Journal of Criminal Justice*, 23, (2), 201-222.
- Stattin, H., & Magnusson, D. (1989). Stability and change in criminal behavior up to age 30. *British Journal of Criminology*, 31, 327-345.
- Stattin, H., & Magnusson, D. (1991). The role of early aggressive behavior in the frequency, seriousness, and type of later crim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7, 710-718.
- Wilson, J. Q., & Hernnstein, R. J. (1985). *Crime and human nature*. New York: Simon & Schuster.
- Wolfgang, M. E., Figlio, R. M., & Sellin, T. (1972). *Delinquency in a birth cohort*.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 차원고접수 : 2003. 3. 26.

수정원고접수 : 2003. 5. 25.

최종제재결정 : 2003. 6. 2.

Analysis for Variables Discriminating Life-Course Persistent type and Adolescence-Limited type among Juvenile Offenders

Kye-Min Yang

Uichol Kim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scriminating variables and types of delinquent in Korea cross-sectionally. More specifically,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construct a scale classifying the types of juvenile delinquents based on the Moffitt theory (1993), which assumes that delinquents are not homogeneous and their behaviors are revealed in different etiology, even though they are conceived as the sam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was performed in the following procedures. First, the questionnaire was constructed by the Moffitt theory and previous studies of Koreans and Americans relating to recidivism and early deviant behavior prediction. Second, the variances of all the items in the questionnaire were calculated and th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he items, that have been removed, has the variance below 0.1, which has no power of discriminating criminal group and non criminal group in regression. In the third procedure, the variables were extracted. These variables discriminate criminal group and non criminal group in the adolescent category, and the same process was executed in the adult category through discriminant analysis. Finally, the adolescent group was classified into two dimensions: one dimension classifies the adolescent group as criminal group and non criminal group and the other discriminates adult group as criminal group and non criminal group. Discriminant analysis revealed that the final scale for discrimination of LCP and AL consisted of three factors: Adolescents' behavior factor, friend factor, and family factor. This study found five important implications. First, this research has established the psychological basis for the discrimination of juvenile delinquents types. Second, a delinquent who is classified by this scale has the higher probability of correct assignment than the existing accepted idea about crime prediction. Third, the allocation of minors into specific intervention is possible based on the psychological theory. Fourth, the friend factor through discriminant analysis, is a unique variable for the Koreans. Finally, this study is identified as cross-sectionally method for juvenile delinquent types, and not longitudinally study. Therefore, this study is able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longitudinal method.

Key Words : juvenile delinquency, Moffitt, life-course persistent, adolescence-limited